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8, 선거제도 공식화, 3호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8, 선거 체계적 공식화, 번호 3입니다.

로마서 8:28-30과 에베소서 1:3-14를 살펴본 후, 먼저 에베소서 1:3-14, 로마서 8:28-30과 로마서 9, 적어도 대부분, 위대한 구절, 선거에 대한 역사적 구절을 살펴보고, 체계적 강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9은 바울이 영원한 시대 이전에,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위치시킨 두 곳 중 하나입니다(에베소서 1:4). 그 은혜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속에서 계획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1:10의 언어를 사용하여, 죽음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혀 주신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통해 시간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그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의 주권과 은혜, 그의 목적과 자비, 그의 뜻과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는 다음 구절에서 보여 주듯이 개인과 교회를 택하십니다.

선거는 개인과 교회를 범위로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개인을 선택하시며, 그 개인은 공동체적으로 그의 교회를 구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업 선거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솔직히 말해서, 칼빈주의는 제 생각에 기업 선거를 적절히 강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부 공동체적 또는 교제적 적용에서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업 선거는 모든 신약 전집, 즉 복음서에서 가르쳐집니다.

마태복음 13:20, 22, 26, 27. 마태, 내가 마태라고 했나요? 여기서 실수가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적어 두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3:20, 22, 26, 27. 마태복음 22, 14. 제 실수였습니다. 요한복음 6:37. 요한복음 10:26, 27. 요한복음 17:2와 24. 사도행전 18:9와 10.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 1:4에서 법인 또는 복수 선거에 대해 가르칩니다. 로마서 8:29, 30. 골로새서 3:12.

데살로니가전서 1:4, 5. 데살로니가후서 2:13. 디모데후서 1:9. 디도서 1:1. 일반서신 야고보서 2:5. 베드로전서 1:1, 2. 베드로후서 1:10. 요한2서 1, 13.

계시록 17:14. 이 중 몇 가지 본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13

바빌론에 있는 그녀와 함께 너희를 택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것은 바빌론이라는 신비로운 상징을 사용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고대 하나님의 원수인 바빌론을 현재의 하나님의 원수인 로마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바빌론에 있는 그녀와 함께 너희를 택하심을 받으신 그녀가 너희에게 인사를 전하고, 나의 아들 마가도 인사를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13. 요한2서 1, 13. 1절과 13절.

장로, 저자, 택함받은 여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그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언급하는 듯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요한2서 1절과 13절. 택함받은 바빌론의 여인, 택함받은 여인, 요한2서 1절, 그리고 그녀의 택함받은 자매, 13절은 교회들과 공동체적 선택을 언급합니다.

성경은 단체 선거를 가르칩니다. 또한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서 개인 선거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내기로 택한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27 ESV.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넘겨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기로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27.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 대한 독특한 상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성육신한 아들에게 아들이 선택한 대로 아버지를 알리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38년 동안 절름발이였던 사람을 고친 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19, 20. 후자의 인용문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아버지와 아들이 행한 한 가지 일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인용문: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아들도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21절.

복수형이며 예수에 의해 선택되고 살아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회개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선거에 대해 단 두 번만 언급하는데, 한 번은 단체 선거에 대해, 사도행전 18:9과 10에, 한 번은 개인 선거에 대해, 사도행전 13:48에 언급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의 페르가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후,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와 이사야 49:6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삼았으니,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오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여전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뻐했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했으며, 영생에 임명된 모든 사람들은 사도행전 13:47, 48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영생에 임명하신 것은 구원하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 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택함받은 자를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가? 걱정하는 교구민에게 한 칼빈의 대답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선택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4절, 형제들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압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권고를 깊이 들여다보고 창조 이전의 신성한 뜻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헛소리입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이 칼빈이 우리에게 경고한 미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충고를 탐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형제들이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는 바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권능과 성령과 온전한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압니다. 믿음은 선거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선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들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단계를 건너뛴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사람들을 비추고,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으로 이끕니다. 바울은 단체적 선택과 개인적 선택을 모두 가르칩니다. 로마서 9장에서 그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신의 특권에 대해 가르친 것을 인용합니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입니다. 로마서 9:15.

누구에게와 누구에게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바울의 말은 모세의 말을 바울의 사역에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인용하자면, 그는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강박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강박하게 합니다.

18절. 누구에 대한 것은 단수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비를 받는 자들을 선택하셨고 다른 개인들은 거부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소홀히 여겨진 선거 본문이 로마서 끝부분에 있는 바울의 인사에 나온다.

루푸스에게 인사해. 로마서 16:13. 교회에 물어보면 아무도 이 본문을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Electos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

더그 무는 이것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루퍼스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합니다. 인용문: 바울은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13.

선거 목표,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원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영원의 과거에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은 교회와 자신을 위해 선거에 관한 목표를 정하셨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최종 구원이며, 거룩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에베소서 1:4 입양.

5절. 그리스도와 일치함. 로마서 8:29.

그리고 상속 재산. 에베소서 1:11. 그리고 영광.

로마서 8장 30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선거와 최종 구원을 결합합니다.

인용문, 이것이 바울이 "나는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는 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함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들이 택함받았다면, 왜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얻는 것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의 저자인 바울은 또한, 최소한으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그를 움직인다. 이것이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이다. 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바울은 그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선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끝에 유창하게 덧붙입니다.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아멘.

덧붙이는 것이 덧붙이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그저 입에 발린 말보다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을 위해 택하셨는데, 그 목적은, 인용하자면, 그들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12.

클린트 아놀드는 에베소서에서 그의 주석에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백성을 선택하고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자신의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사도가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대에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노래할 때 그와 함께 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느낍니다.

아멘. 에베소서 3:21. 선택, 역사적이고 영원한.

존 프레임. 프레임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수년간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공동 편집하고 있던 책의 한 장을 써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저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저는 당신의 프로젝트를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고 싶지만, 주님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시기 전에 체계 신학 책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썬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그 책을 끝마쳤고 그 후에 다른 책들도 끝마쳤습니다. 그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그는 저와 크리스토퍼 모건에게 그의 이전 글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글이었고, 크로스웨이의 죄에 대한 책에서 악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존 프레임은 그의 책, 신의 교리, 317~330쪽에서 역사적 선거와 영원한 선거를 유익하게 구별합니다. 신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역사적 선거입니다. 신이 역사 속에서 한 나라를 택했지만, 그의 선택이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인의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반대하고 계속해서 언약을 어긴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역사적 선거를 통해 눈에 보이는 신약 교회를 법인적 백성으로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개인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영원한 선택은 항상 구원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전에 구원을 위해 개인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며, 이는 신약성서에 계시되어 있다. 역사적 선택과 영원한 선택은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을 포함하지만 그 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유형이다.

역사적 선거는 사람을 신앙 공동체에 두지만 구원을 위해 영원히 선출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선출된 개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이 시점에서 언급하기 좋은 또 다른 출처는 토마스 슈라이너의 에세이 Does Romans 9 Teach Individual Election Under Salvation? 입니다. 이 책은 브루스 웨어와 공동 편집한 Still Sovereign,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Election for Knowledge and Grace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 로마서 9장은 구원 하에서 개인적 선택을 가르치는가 ?, Still Sovereign,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Election for Knowledge and Grace에서. 여기서 우리는 선택과 예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르미니우스 전통에서 선택은 예지에 종속됩니다.

결국 바울은, 그가 미리 아는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에 따라 형성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29. 아르미니우스파는 예정이 예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 것인지 미리 아신 것으로 이해한다.

인간이 무언가를 미리 알 때, 그들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봅니다. 미리 안다는 단어는 베드로후서 3:17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저는 신약에서 미리 알다와 미리 아는 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단어 연구는 신학적 결론과 무관해야 하며, 사실, 때때로 그들은 사람들이 미래에 사실을 안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제 주장은 때때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정하시고, 미리 사람들에게 사랑을 정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예지에는 예지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예지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예지는 사실,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의 예지입니다. 예지는 그의 예지력, 예지력, 사물에 대한 예지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시는 생각을 포함하지만, 또한 예지의 개념도 포함하는데, 제가 얻으려고 했던 단어인 예지입니다.

그러한 포함은 단순히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텍스트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지식일 때, 신이 사람을 아는 것은 언약적 또는 개인적 차원을 갖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아니오' 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알고, 야다, 아브라함에게서 선택하셨습니다(창세기 18:19). 이 번역은 '아니오' 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정신적 인식을 가지고 계셨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는 아모스 3:2에서 나옵니다. 아, 아모스 3:2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에는 징계가 포함됩니다. 여기서도 야다라는 단어는 알려진 것을 의미하며, 어떤 번역에서는 좋은 이유로 이 단어를 선택받은 것으로 번역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너희만을 택하였노라.

NIV, NET, NASB. 분명히,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인지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모스 3:2에서, '아니오' 라는 단어는 개인적이고 언약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레미야가 같은 방식으로 선지자로 알려졌음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찍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1-5장,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시편 1-6장에서도 비슷한 용례를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의로운 자의 길을 아시지만, 경건치 않은 자의 길은 멸망 할 것입니다 .

물론 주님은 악인의 길도 인지적으로 아십니다. 다음 줄에서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불경건한 자의 길은 멸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아시는데, 이는 그분이 그의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한 사랑을 두신다는 의미에서 '아니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책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떻게 다시 약하고 무가치한 것들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그들에게 종이 되고 싶습니까? 갈라디아서 4:9.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들의 회심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깊은 현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궁극적 이유를 고려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 데서 찾습니다. 그는 언약의 애정을 그들에게 두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비슷한 글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를 다루는 서론 문단에 나온다. 고린도전서 8:1-3. 아는 자들은 우상과 음식에 대한 지식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1-13절. 그들은 지식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것을 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에 곤봉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상기시키고 책망합니다.

인용문,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알려졌습니다. 3절. 근본적인 문제는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알려졌는지 여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28, 고린도전서 2:9를 비교해보세요. 미리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미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미리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완료형은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는 것의 결과임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람들, 그분의 언약적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애정을 의미하는 아는 것의 또 다른 예가 디모데후서 2:19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2:19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이 비문을 지니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을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을 고려합니다(15-18절). 그러한 교사들의 책략의 결과로 어떤 사람들의 신앙은 파괴되었습니다(18절). 그것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19에서 민수기 16:5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항한 고라, 다단, 아비람의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그분의 소유인 사람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의 친구들은 배교를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따르면 믿음에서 이탈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언약적 애정을 두신 자들은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예지는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의 언약적 애정과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1:2에서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보존은 이스라엘에 미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논의의 한가운데서, 미리알았다는 의미는 문맥과 문장에서의 사용에서 분명합니다. 문맥상,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선택(로마서 11:5)과 보존(4절)을 가리킵니다. 또한 미리알았다는 단어가 거부당했다는 단어와 대조되기 때문에 문장에서 의미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습니다.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적 애정과 사랑을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29장에서 우리는 예지의 또 다른 예를 봅니다. 그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로마서 11:2에서 예지가 미리 정해짐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애정을 지칭한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베드로전서 1:20에서도 뒷받침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창조 전에 미리 알려지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계시되었다고 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미리 아셨지만, 단순히 그분의 도착을 미리 아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미리 정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과 예지에 따라 넘겨졌습니다(행 2:23). 결정된이라는 단어는 예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며, 예지가 예정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제안된 해석은 사도행전 4:27-28에서도 뒷받침되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도시에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모였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손과 뜻이 일어나도록 예정하신 모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지를 예견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어의 실제 사용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23과 베드로전서 1:20에서 우리는 예지가 예지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1과 2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유배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지에 따라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예지 에 따라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정하셨듯이(베드로전서 1:20), 그는 또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믿는 자들을 택하여 언약의 애정을 그들에게 두셨습니다(베드로전서 1:2). 따라서 예지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사랑에 대한 헌신을 결합합니다.

저는 구원적이고 구원론적인 맥락에서 미리 사랑함, 미리 알음, 사랑함이라는 번역을 좋아합니다. 선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할 때 종종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그렇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간 이전의 선택과 연결합니다. 바울이 시간 이전의 선택이나 영원한 선택을 가르친 두 번에서, 두 곳 모두에서, 그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머리를 긁습니다. 에베소서 1:4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9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이 두 본문의 차이는 시간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을 사용하여 연합을 말할 때마다 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에베소서 1:4과 베드로후서 1:9에서 그는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택함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실제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할 수단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영적으로 그의 아들과 연합시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1:9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이 나중에 생각해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선택과 부르심. 때때로 성경은 체계화 경향을 보여줍니다.

즉, 때때로 그것은 자신의 가르침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한 연결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좋아합니다.

선택과 부르심. 바울은 세 번이나 선택과 부르심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통해 부르십니다.

우리는 부름이 복음 부름,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부름을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인 부름을 포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로마서 8장 28-30절에서 선거와 부름 사이의 연관성을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고, 그가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는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28-30.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28절.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선택을 그리스도께 부르심과 연결합니다. 그가 예정하신 사람들을 그는 또한 부르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30절 .

두 번째 구절은 부르심과 선택을 연결합니다. 로마서 9:22-24.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알리고자 하사 멸망을 위하여 준비된 진노의 대상들을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한 그의 영광의 부름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면? 곧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도 부르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면? 로마서 9:22-24.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책임질 수 있고, 유죄하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 :18-3:20. 여기서 그는 더 궁극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운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멸망을 위하여 준비된 진노의 대상들이 있느니라. 8:22. 9:22.

내 실수. 그리고 그가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한 자비의 대상. 23절.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1세기의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 중 하나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즉 그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셋째.

세 번째 구절은 선거와 부르심을 연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이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의 구원의 한 대상, 그의 구원의 한 측면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그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위를 창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와 대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때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한 선거를 시간적 부르심과 연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믿음이 선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선거와 믿음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8, 선거 체계적 공식화, 번호 3입니다.